

- 주요 뉴스: 미국 공화당, 연방정부 부채한도 확대에 대한 협조 의사를 피력
 - IMF, 전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은 금년 가을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완화될 전망
 - 미국 에너지 장관,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 방출을 검토
 - 러시아 대통령, 전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준비
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부채한도 협상 진전 기대 등으로 주가 상승 전환

주가 상승[+0.4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하락[-1bp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부채한도 확대 관련 우려 완화 등으로 투자심리 개선
유로 Stoxx600 지수는 성장 둔화 가능성 등으로 1.0 % 하락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9월 ADP 민간고용 등을 반영
유로화 가치는 0.4% 하락, 엔화는 강보합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저가 매수 유입 등이 배경
독일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며 6월말 이후 최고 수준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91.6원, -1.5원) 0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0/6일	10/5일	전일대비			10/6일	10/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363.6	4,345.7	0.41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2%	1.53%	-1bp
	유럽	451.33	456.03	-1.03%		독일	-0.18%	-0.19%	1bp
	중국	휴장	휴장	-	CDS 5y	한국	20bp	20bp	0bp
	일본	27,529	27,822	-1.05%		중국	52bp	51bp	1bp
	한국	2,908.3	2,962.2	-1.82%	위험 지표	EMBI+	-	377	-
환율	달러지수	94.23	93.98	0.27%		VIX	21.00	21.30	-1.41%
	유로화	1.1556	1.1598	-0.36%		WTI유	77.43	78.93	-1.90%
	엔화	111.41	111.46	0.04%	원자재	구리	417.5	419.3	-0.42%
	위안화	휴장	휴장	-		금	1,762.7	1,760.2	0.15%
	원화	1,192.3	1,188.7	-0.30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공화당, 연방정부 부채한도 확대에 대한 협조 의사를 피력

-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의 일시적 유예 법안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라고 언급. 이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구체적 언급을 자제
- 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부채한도 유예가 종료되는 12월에는 결국 다시 한 번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. 그러나 증시에서는 부채한도 확대 관련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요 주가 지수가 상승 마감
-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확대 실패가 초래할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.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,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욱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IMF, 전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은 금년 가을 정점을 기록한 후 점차 완화될 전망

-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년 가을 인플레이션이 각각 3.6%, 6.8%를 기록한 이후 내년 중반에 2.0%, 4.0%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. 다만 공급 차질 등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부연

■ 미국 에너지 장관,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 방출을 검토

- 제니퍼 그랜홈 장관은 원유수출 금지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고 언급. 민주당에서는 내년 중간선거를 대비하여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가 증가

■ 미국 9월 ADP 민간고용, 전월비 56.8만건 증가하여 전월(34.0) 및 예상치(42.8) 상회

- 이번 결과는 코로나 19의 여파가 완화되면서 식당 등 대면 접촉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된 것에 기인. ADP의 Nela Richardson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코로나 19의 영향에 좌우되지만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

■ ECB, 긴급자산매입 종료 시 새로운 채권매입프로그램 시행을 검토

- 복수의 관계자들은 새로운 채권매입프로그램이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을 대체하고 기존의 자산매입프로그램(APP)을 보완하는 조치라고 설명

■ ECB, 2/4분기 역내 은행권 부실채권이 감소했으나 관련 위험을 경계할 필요

- 해당 기간 역내 114개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4220억유로를 기록하여 전분기(4550억유로) 대비 감소. 부실채권 비율도 2.54%에서 2.32%로 하락.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책 감소 시 부실채권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

■ EU의 에너지 담당 위원,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경기회복을 위협

- EU의 카드리 심슨 위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각 국가가 대책을 요구하는데, EU의 규정을 어기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첨언

■ 홍콩 부동산 기업, 중국 헝다그룹에 수수료 지급 요구하며 제소

- 홍콩 기업 Centaline과 Midland Holdings는 각각 310만달러, 434만달러의 수수료 지급을 요구. 다만 최근 홍콩 당국은 헝다그룹 사태로 홍콩 부동산 부문에서 시스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발표

■ 러시아 대통령, 전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준비

-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항상 의존할 수 있는 공급국가의 역할을 이행했으며, 지금도 유럽에 추가적인 가스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. 다만 기존 계약 규모 이상을 공급할 수 있으나, 추가 공급량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부연

■ Morgan Stanley, 미국 증시는 성장 둔화에 따른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

- 마이크 월슨 스트래티지스트는 S&P500 지수 기준 고점에서 10~20% 하락을 예상한다고 언급. 또한 실적발표 시즌이 시작되어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킬 수는 없어 주가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6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8월 소매매출(전월비): 0.3%, 7월(-2.6%), 예상치(0.8%)
- 독일 8월 제조업수주(전월비): -7.7%, 7월(4.9%), 예상치(-2.1%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0/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, ECB 레인 이사,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 강연
- 미국 10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8월 소비자신용잔액, 독일 8월 산업생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연준 통화정책, 낙관적 인플레이션 전망으로 정책 오류 위험 증가 - 블룸버그

(The Federal Reserve Is Fighting the Wrong Inflation War)

-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오랜 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구사. 당시 2%의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예상보다 낮은 실업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에 근거.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일시적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
- 연준은 현재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, 인플레이션이 2022년 2%목표에 근접하고, 2023~24년에도 지속적 하락을 예측. 아울러 내년부터 예상되는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고, 2024년 금리전망도 1.8%로 낮게 설정
- 하지만,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고 완전고용 까지 가속화된다면, 연준의 낙관적 태도와 느린 대응은 급선회가 불가피. 이는 금융시장 혼란과 경기침체를 야기할 위험

■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문제 확산, 위험은 주택가격에 초점 - WSJ

(China's Property Fantasia Turns Nightmarish)

- 헝다그룹에 이어 Fantasia Holdings도 달러 표시 채권 미상환으로 중국 주택시장 문제가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. 게다가 중국 정부의 자금조달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실 리스크는 지속될 가능성
- 중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 부채와 투기 등에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,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부동산 개발업체와 은행권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. 특히 소도시로 관련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

■ 저금리 기반 경제, 물가상승 압력 증가로 다른 경로의 정책이 필요 - Financial Times

(Stagflation risk returns for investors as gas prices surge)

■ 바이든의 대중 무역정책, 중국 변화보다는 자국 경제 및 동맹국 관계에 집중 - WSJ

(U.S. Trade Policy Adapts to a China That Will Never Change)

■ 영란은행, 인플레이션 기대 증가에 신중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 - 블룸버그

(The Evidence Is Piling Up: Inflation Doesn't Look Transient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